

김영록, 통합특별시장 본경선 앞두고 ‘勢결집’ 박차

선거사무소 개소...지지 선언 이어져
“지방주도성장 새로운 역사 쓸 것”
의사 373명 “시민건강 지킬 유일 후보”
8대 여성 정책 발표...비전 경쟁 주력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9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김 예비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본경선(4월3-5일)을 앞두고 광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 등 지지세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각계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한편,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가는 등 타 후보와 차별화된 ‘비전 경쟁’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10시 광주 광천동 해남빌딩 4층에서 지지자 수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박지원·박관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광주·전남 지역 원로들도 대거 참석해 김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한 발걸음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박광태 전 시장은 축사를 통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뛰어난 경륜을 가진 김영록 후보가 당선돼야만 전남광주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당당히 경쟁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여러분의 손으로 김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원 의원도 인사말에서 “일 잘하는 사람, 일을 해 본 사람만이 전남광주특별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등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성과를 낸 김영록 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선거”라며 “일 잘하는 저 김영록이, 이 대통령이 밝힌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개소식 말미에 시민들과의 즉석 소통시간을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여성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했다.

앞서 광주·전남지역 의사 373명은 전남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철수 목포한국병원장과 이경동 영광 고은피부와 원장 등 지역 의사들은 “전남의 40년 숙

원인 국립 의대 설립과 정원 100명 확보 등 폐거를 이뤄낸 김 예비후보가 320만 특별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가적 위기 극복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다”며 “지역 필수인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를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정주 여건을 만들었고 공공산후조리원 및 ‘달빛 병원’의 완결로 안전한 출산과 육아의 틀을 구축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 섬 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연일 분야별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준비된 통합특별시장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 ▲영·유아, 어린이 등 0-3세 돌봄 시스템 ▲공공심아어린이병원 특별 시전역 확대 ▲권역별 공유 업무·보유 공간 ‘일·꿈·맘 센터’ ▲‘돌봄경력 인정제’ 등 경력보유 여성 대책 ▲여성 노동 SOS 센터 설치 ▲다문화여성 정책 ▲준엄 패키지 제도 시행 ▲500인 여성회의 상설화 등 여성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공약 제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재정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에 전국 최초 ‘수소 대동맥’ 구축”

“초광역 에너지플랫폼 산업지도 재편”
미래교육포럼 170명, 지지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수소-지역전력망 통합 플랫폼 구축’ 구상을 내놓았다.

이번 구상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지역 전력망과 수소, 산업과 교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광역 에너지 전략이다. 버려지는 전기를 산업 에너지로 전환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 정책으로 ▲지역전력망 구축 ▲영역 전력의 수소 전환·저장 ▲T 자형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수소 기반 교통 체계 추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전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수소로 전환해 산업, 도시, 교통에 활용하는 에너지 순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수소 인프라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한 T자형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된다. 북부축은 한빛원전에서 나주·광주로 이어지는 안정적 공급축, 서남축은 신안·해남·영암·진도 등 재생에너지 거점을 연결하는 집결축, 동부축은 광주에서 여수산단과 광양제철로 이어지는 산업 활용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광양은 수소환원제철, 여수는 친환경 화학산업,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중심지로 전환한다는 게 민 의원의 구상이다. 전남이 생산하고 광주가 연결하며 여수·광양이 산업화하는 ‘에너지 기반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제 산업은 땅값이 아니라 전기와 에너지를 따라 움직인다”며 “전기를 버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저장하고 산업과 도시를 움직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광주미래교육포럼 170명은

민형배 의원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미래교육포럼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남·광주가 경계를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며 “민 의원은 지역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분명한 비전과 실천력을 보여준 지도자”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광주미래교육포럼 운영위원 26인과 시민위원 10인 등 총 36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광안구)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실 제공>

‘당규 위반’ 논란에...박지원, 민형배 후원회장 사임

“당에서 지침 명확히 하면서 정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후원회장직을 사임했다.

29일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당이 현역

의원들의 후보 캠프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한 지침을 밝히는데 이어, 후원회장도 후보 캠프의 직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민형배 후보 후원회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민 의원이 2년 전 총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경쟁할 당시부터 후원회장을 맡아온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당에서

지침을 명확히 하면서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후보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원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는 등 중량급 인사들이 캠프에 대거 참여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이 보도된 이후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출마 예정자 후원회장을 맡을 경우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문화연구소 손해보험협회